

교육세 개편 여부 및 방향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6.7.27. 매일경제는 「초중고에 배정되는 교육세 1조... 유아·대학교육 위해 운영 추진」 기사에서,
- “정부는 교육세에서 보통교부금 몫을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. 그 대신 특별회계 투입 재정을 늘려 대학 경쟁력 강화나 유아교육 등 정책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투자를 늘리겠다는 방향을 세웠다.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기획예산처 입장>

- 교육세 개편 여부 및 방향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므로,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기획예산처 인적자원예산과	책임자	과 장	최진광 (044-214-2530)
		담당자	사무관	김종완 (srandoms@korea.kr)